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9.(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9월 9일(수)부터		
담당부서	의사입법담당관 정책팀	담당자	김인주 팀장(044-300-7321)
			유재한 주무관(044-300-7322)

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강력 촉구

-안신일 의장, ‘지방의회법 TF 단장’으로 국회 기자회견 주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안신일 의장과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의장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됐다. 안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독자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의지를 다졌다.

안신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국 시도의회들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향후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의는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